

2008년 6월 13일 메시지

- 월명동 다닐 때 조심해서 잘 다녀야 합니다. 차 사고는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차사고 나면 본인들의 관리 부족입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도 억울한데 사고 나서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순간에 사고가 나니 조심해야 합니다.

- 월명동도 예약제로 해서 그렇지 예약 안 받으면 10만 명도 더 옵니다. 제재 안 하면 우리가 사용을 못하니 예약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만 해도 숫자가 엄청나니까요.

- 한국 기독교 중에서 예수님 상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7미터짜리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미터, 그 다음에 20미터 만들려고 합니다. 왜 크게 못 만드냐 하면 돌이 없습니다. 원석이 없습니다. 중국 가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중국에도 큰 돌은 없었습니다.

- 우리가 방송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세계 20개국을 돌아다녀봤는데 중국은 대범합니다. 대범하게 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근본의 것이 없습니다. 4819. 하늘의 그 정과 사연이 없습니다. 한국은 순간 재미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계를 돌아다녀서 압니다. 정신적인 세계를 내가 지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가 보려고 했는데도 볼 것이 없었습니다. 수준도 낮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해서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월명동에서 하는 토요무대도 계속 해주도록 하십시오.

- 앞으로 내가 방송국 설치하려고 합니다. 누가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송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열굴 나오면서 뉴스 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부터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하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다 맡겼으니까 이제 멋있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설교 하는 것 쉽습니다. 남 보고 그냥 얘기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병아리 관리하듯이 관리해야 합니다. 병아리 관리 못하면 금방 독수리가 채어가고 까마귀가 채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어미 닭에게 배워야 됩니다. 목자들 같이 하십시오. 성경에 목자 얘기한 것은 관리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관리를 철통같이 해나가고 계속 발이 부르토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나 30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2만 번 설교

해도 몰랐는데 가만히 세어 봤더니 한 2만 번 설교했습니다. 청중집회, 작은 집회 포함해서 2만 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적으로 50개국에 복음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도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갔을 때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기다려도 안 오길래 아~ 진짜 지독한 나라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음 넣어서 지금은 교회를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나 보고 싶다고 계속 한국에 면회 온다는 거 내가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엘리트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 먹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까? 입는 옷이 그렇게 귀합니까? 자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까? 나는 잘 때가 있었어도 잠을 못 잤었습니다. 집 지어 놓고 산에 가 있었습니다. 새 집 지어놓고 산에서 흔들며 살았습니다. 새 집에서는 며칠 못 살았습니다. 새 집 지었을 때 내가 거기 며칠 못 있고 어머니를 거기 모셔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세계 돌아다니면서도 어디 특별한 데서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 월명동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안내해 주면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 골짜기 옛날 사진을 갖다 놓고. ‘개발하기 전에 이와 같은 곳이었는데 이렇게 개발했다. 하나님이 구상해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만드셨다. 우리들도 그 정신과 행실을 개조한다.’ 라고 설명 해주십시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머릿속에 한마디씩 꼭 남겨져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것을 듣고 뭘 생각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권의 책으로 한 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 사람이 모두 사용할 때 귀함을 잘 모릅니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종지와 불펜이 없이 10달 동안 살았습니다. 종지와 연필이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여기서 알았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밀려오는데 어디다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신의 펜으로 마음에 새겨라.’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나가면 종지에다 써서 다시 책을 내 천년 동안 보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번을 머리에다 외었습니다. 천재가 됐습니다. 지금은 전화번호 하나를 못 외웁니다. 10억을 준다 해도 모릅니다. 전화번호 하나를 모릅니다. 그 정도로 책을 머리에다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달렸습니다. 나는 어디가도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 우리 섭리사가 세계에서 제일 큼니다. 유명한 교회로 알려진 곳도 전체적으로 470개인데 우리는 400개쯤 됩니다. 외국에도 27개,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 기간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맨날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가는데도 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